

"난청 어려움 최소화 목적"...보청기-청능재활 전문가 모임 청능사협회 발족

입력 : 2018.08.28 11:14



▲ 사진=한국청능사협회 제공

선진 사회에 진입할수록 장애와 복지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근거로 다양한 각도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국내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는 노인성 난청 재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때다.

이에 국가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호소하는 불편한 장애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노인성 난청의 재활의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보청기국가보조금이다. 지난 2015년에 기존의 34만원이었던 보청기국가보조금을 131만원으로 확대하고(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49호) 적극 개입하면서 노인성 난청을 포함한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 복지와 난청 해소에 공헌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적 재원의 낭비를 막고 보다 효과적으로 보청기적합과 청능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청기 선정, 상담, 적합, 청능훈련 및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능사(Audiologist)는 일반적으로 보청기업소에서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보청기 조정 및 판매 목적의 청력검사와 청능훈련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병의원에서는 난청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이비인후과 의사의 지도하에 보다 포괄적인 청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의 경우,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한 자격검정을 통해 2,487명(2018. 7월 기준)의 청능사(민간자격등록 2008-0334호)를 배출했다. 청능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전문청능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청능사들이 모여 지난해 초에 발족한 한국청능사협회는 ▲청능사들 고유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 보장 ▲청각관리 서비스의 국가·사회적 필요성 확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만족도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청기와 청능재활은 청능사에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범한 한국청능사협회는 ▲난청인의 의사소통 향상 ▲사회적 참여와 활동에서의 기능 향상 ▲난청으로 인한 어려움 최소화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능사협회는 의료 영역과 구분하여 청능사의 업무범위와 교육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충족한 회원들의 전문성과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조하고자 한다. 청능사협회를 통한 청능사의 전문성 보장과 공공성 함양은 청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 청각학 박사 및 임상박사 취득 후, 한국과 미국에서 다년간 임상경험을 쌓고 후학에 힘써온 이정학 한국청능사협회 초대회장(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난청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청능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청능사협회는 난청인을 위한 체계적인 보청기적합 및 청능재활 서비스 개선과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보청기와 청능재활을 포함한 청각관리 영역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전문 업무영역으로 분류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청능사협회의 발족은 난청인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노인성 난청 재활의 긍정적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재 청능사 국가자격 발의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오는 8월 28일 오후 1시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능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한국청능사협회 후원)도 진행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현재와 미래의 노인과 난청인의 복지 구현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한국청능사협회의 행보와 정책에 사회적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